

“소통·화합 바탕으로 회원사 경쟁력 강화”

광주경총, 신임 양진석 회장 취임식
정부 건의 확대·직무역량 강화 추진
회원 확충·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노사협력대상 기아 오토랜드 광주



양진석 회장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의장과 박용훈, 엄홍섭, 최상준 광주경총 역대 회장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봉길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노동계와 협력해 지역 노사관계를 안정시키



1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경영자총협회 17대 양진석 신임 회장 등 관계자들이 2023년도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고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매년 3000여명의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을 지원했던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회원 배가 운동으로 정회원과 준회원 등 1500개사가 넘는 회원 증대를 통

해 광주경총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이 큰 보람이었다”며 인사를 전했다.

제17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은 신임 양진석(해피니스CC·㈜호원 회장)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한 선대 회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훌륭한 업적과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회원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원 확충과 우리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진석 신임 회장은 임기간 회원 애로 발굴과 대정부 건의 확대, 맞춤형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사 직무역량 강화,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회원에게 꼭 필요한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취임식에 앞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및 2023년 사업보고와 예·결산 심의가 진행됐으며 제17대 양진석 회장 선임과 김봉길 회장을 명예 회장으로 추대하는 의안이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는 노사협력대상에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사업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사협력유공자로는 ㈜현대하이텍 김용구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기아 오토랜드 광주 김희준 상무가 광주시장 표창, 금호익스프레스㈜ 차상석 차장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아이크디 한동철 전무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표창 등 총 4명이 수상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삼성전자, GIST와 손잡고 ‘지능형 모터’ 인재 육성

채용연계 ‘지능형 모터 트랙’ 신설
석사 과정 운영... 매년 15명 양성

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가전제품의 핵심인 모터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삼성전자는 15일 광주과학기술원과 채용연계형 양성 과정인 ‘지능형 모터 트랙’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무형 부사장과 광주과학기술원 박지용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능형 모터 트랙’은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며 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은 올해부터 매년 15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모터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내구성 강화에 핵심적인 기술로 ‘지능형 모터 트랙’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기계 분야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전망이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다. 삼성전자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해외 저명 학회 참가 등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받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가전 핵심 부품의 성능과 친환경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와 ‘친환경 에너지 연구센터’, 서울대학교와 ‘미래가전 구동기술센터’, 연세대학교와 ‘친환경 신소재·표면나노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해 협력하고 있으며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광주캠퍼스를 운영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CSR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대유에이텍, 사용자 편의 ‘기술특허’로 경쟁력 확보

무선 차량용 시트 자동 조작 특허
차내 편의장치 원하는 위치 배치
“최정상 기술력, 글로벌 기업 도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 대유에이텍이 다양한 기술 특허를 획득하며 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15일 대유에이텍은 친환경, 자율주행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차 및 사용자 경험(UX)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 자율주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과 연계한 특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유에이텍은 지난해 10월 차량용 시트의 자동 조작을 무선으로 가능케 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자율 주행 시대를 앞두고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실내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로, 완전 자율주

행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운전자 중심이었던 차량 실내가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개발됐다.

현재 자동차 시트 조작은 유선 전력 공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시트 위치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대유에이텍이 개발한 해당 기술을 통해 무선 전력을 공급, 자동차 시트의 위치가 전·후·좌·우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대유에이텍은 차량 내 전자제품 등의 편의장치를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돕는 ‘차량용 실내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장치’ 등의 미래차 관련 특허를 출원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사용자 경험(UX) 관점에서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도 국내·외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

‘차량용 시트장치’ 특허는 차량 내 뒷좌석 시트를 손쉽게 수납할 수 있는 기술로

시트 하단에 슬라이딩 레일을 추가해 작은 힘으로도 시트를 쉽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3열 이상의 시트를 가진 차량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마지막 열의 시트를 차체 하부로 수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데, 이때 시트의 구조적 특성으로 큰 힘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유에이텍의 차량용 시트장치는 시트 하단에 슬라이딩 레일을 추가해 작은 힘으로도 시트가 완벽히 눕혀지는 카고 플랫폼(cargo flat)으로 트렁크 공간의 적재 용량을 증가시켰다. 해당 기술은 국내 및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대유에이텍 관계자는 “자동차 시트 관련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대유에이텍은 최정상의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통신 3사도 ‘민생안정’...3월 데이터 추가 제공

SKT·KT 30GB 무료 제공
LGU+ 기본 데이터 추가

물가 인상에 따른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도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책을 내놓았다.

먼저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G·LTE·5G 고객에게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제공 데이터 이용 방법과 기존 등 세부사항은 이달 내로 T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데이터 제공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도 서비스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트래픽 전담반을 구성해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T 역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의 3G·LTE·5G 고객에게 이달 1일 무료 데이터 30GB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데이터 이용 시 제공받은 무료 데이터

가 자동으로 먼저 소진되며 3월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KT는 데이터 무료 제공 대상 고객에게 오는 28일 이전 문자로 사전 안내를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3월 한 달간 모바일 서비스 고객 모두에게 가입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미 데이터가 충분한 ‘5G·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나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스탠다드’, 매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요금제 등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태블릿PC 등 다른 기기에서 나누어 쓸 수 있는 데터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제공한다.

추가 데이터는 3월2일부터 31일까지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URL에 접속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이월 없이 3월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28일까지 예비 재창업자·기업 모집
최대 1억5천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 재창업자와 재창업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재창업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8명 내외의 재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과제(73명)와 전략과제(IP전략형 15명)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일반과제는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

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하는데, 전남·전북·제주지역의 경우 원광대학교가 주관한다.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략과제(IP전략형)는 특허청과의 협업사업(IP제품혁신지원사업)으로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1629명이 재창업에 성공했으며 재창업 기업들은 1671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345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09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당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 상

한을 높이고 민간역량을 재창업기업 육성에 활용하는 등 재창업 기업에 특화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당 사업화 지원자금을 기존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기관 외에도 대·중견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성공한 재창업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별 전담 멘토를 운영, 투자상담회 등을 진행해 재창업기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재창업 자금(중진공 융자)을 최대 5억원 지원하고, R&D(기정원 과제)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연계지원한다. **곽지혜 기자**